

새벽이슬 청년 선교운동

Morning Dew Mission Movement

• Cel: 201-606-3329 • Email: morningdewmission@gmail.com • www.morningdewmission.org

SERVICE HOURS

아침 예배(월-금 7-8am)

저녁 예배(월-금 7-9pm)

화요 밀알 봉사(월-금 7-9pm)Optional*

수요 성경공부 (수 7-9pm)

금요 노방전도 (노방찬양 / 전도) (금 7-9pm)

토요 새벽기도 (토 6-8am)

토요 초청 예배 & 첫째주 밀알 봉사 (토 11-1pm)

**주일은 각자 출석 교회에서 섬깁니다.

2019년 11월 새벽이슬 선교 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4-15)

10월 6일 선교사 파송예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강권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2천년 전 저희와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은 떨어지지도 폐하지도 않는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매일을 살아 갈 때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환난중에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앞에 없는 것 같이 작아지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결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큰 산 처럼 거대한 문제들이 전 우주의 창조주 이시며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 볼 때 일순간에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6일 청년세대 선교사 파송예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슌 4:7-9)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또한 그가 시작하신 일이 끝 마치시기까지 친히 모든 길을 인도하시어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누군가의 헌신은 결국 반듯이 열매 맺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보증과 언약 위에서 담대히 헌신하고 겸손히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한 청년 세대로 일어 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이 청년 세대와 장차 올 나중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동진 선교사 드림 (새벽이슬 청년 선교 팀 대표)

새벽이슬 청년 선교운동을 통한 한 자매의 간증

외로웠습니다.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휘둘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외로움과 죄책감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듯 보이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마음이 더 드러나고 더 한없이 마음이 가라 앉을까봐 찬양을 부르지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쳐져서 머뭇거리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원했지만 이것조차도 제대로 기도해 볼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지켜보고 계셨는지 그 잠깐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새벽이슬 선교 팀>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새벽이슬 공동체에 온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 무언가를 해내시고자 하시는구나'가 느껴졌습니다. 처음보는 사람들 한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예배도 자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스스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도, 찬양을 한 것도,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나아오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붙들고 계심이 너무나도 느껴져 한참을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망없는 인생 속에서, 아픔 속에만 있는데 주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조차도 저를 지키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같이 찬양드릴 때 너무 행복하고, 기도할 때 나를 더 비워낼 수 있게 하시고, 같이 성경공부 하는 것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만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새벽이슬 공동체에 와서 주님께 찬양하는 기쁨을 알고 기도하며 눈물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공동체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고,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이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매일매일 감격하게 되고, 주님을 위한 일을 더 하고 싶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더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까지 발 벗고나가 전도하고, 손을 벌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이슬 선교팀 L 자매)

후원과 미션홈의 활성화

지난 파송예배 이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도움의 손길과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팽팽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5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작한 이 사역에 지금은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예배에 오고가는 청년이 2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미션홈이 활성화 되고있습니다.

개인의 변화

7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4개월동안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함께 살며 공동체로 생활하는 청년들 한사람 한사람의 변화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은 저희 공동체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매일 드러지는 예배에서 아침저녁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또한 미션홈을 방문하거나 함께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들도 동일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간사 임명

2020년 맞이하며 저희 선교 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다음 STEP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몇몇 헌신된 청년들을 지명하여 간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행정관련 소식

1. 홈페이지 업데이트: 홈페이지 일부를 수정하면서 새벽이슬 선교팀의 소개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여건이 되는데로 다른 선교 관련 영상들도 함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장비가 여의치 않아 영상의 음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 소개 영상을 한번 더 제작하여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 후원자 영수증: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후원 기록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텍스보고 관련하여 후원자 영수증을 발부 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세요.
3. 후원 방법: 후원자 분들의 편리를 위해 Online Transaction 이 쉽고 간편한 Venmo 와 ACH(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설하였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장학금 제도: 내년부터 저희 단체에서는 신실하고 헌신된 청년들 중 공부를 하고 싶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기도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 의료비 지원 제도: 심각한 가정의 문제와 함께 신분의 문제로 인해 집이나 국가정부 어디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나이 어린 청년들은 몸이 아파도 비싼 진료비로 인해 병원에 갈 수조차 없는 어려운 상황속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전

“주의권능의날에주의백성이거룩한웃을입고즐거이헌신하니
새벽이슬같은주의청년들이주께나오는도다” (시 110:3)

깊어져가는 밤 다가오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피어나는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거룩한 청년 군대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션

1. Evangelism 전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 Awakening 각성: 청년들을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3. Discipleship 제자: 청년들을 제자로 세웁니다.
4. Mission 선교: 청년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기도제목

1. 말씀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제 곧 다가올 시대에는 하나님의 새벽이슬과 같은 군대가 반듯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희 선교팀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선교 운동은 지금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듯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시간을 준비하고 헌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2. 지금 함께하고있는 제자 공동체의 청년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도록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되어 마지막 시대를 감당 할 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3. 간사 임명을 앞두고 기도하고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사역을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헌신자들과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맡겨주신 일을 능히 충성되게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Email: morningdewmission@gmail.com

Webpage: www.morningdewmission.org

Venmo ID: Morning Dew @morningdewmission